

내 안의 나를 만나는 길 -무의식과 분석심리학

강사 : 이유경(李裕瓊)
융학파 정신분석가, 분석심리학 연구소
youkyeng@chol.net

차례

제 1강 심리학과 심층심리학

제 2강 콤플렉스와 집단무의식

제 3강 자아의식의 발달사

제 4강 개인의 전(全)인격화(Individuation)

제 5강 꿈의 이해

제 6강 신화와 민담의 이해

제 1강 심리학과 심층심리학

- S. 프로이트에서 C.G. 융으로

정신Geist에 관한 서구의 입장은 중세 이후로 형이상학적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이제 정신이라는 표현은 심리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세기 동안 이루어진 서양철학의 작업은 오히려 정신을 주관정신임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그로부터 인간은 객관정신을 통하여 누리던 우주와의 원초적인 합일과 같은 가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신이 형이상학적 실체라든가 혹은 개인적 정신과 보편적 심성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든가 하는 주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이다.

20세기 초 S.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정신탐구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다. ‘무의식’이란 당시에 새로 생겨난 정신 영역이 아니라, 현미경을 발명함으로써 미생물의 실존이 드러나듯이, 정신의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 드러난 정신 그 자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말하자면 근대 이후 오랫동안 정신 그 자체의 탐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신 그 자체에 대한 관찰 및 탐구를 하는데 있어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가질수 없었기 때문이다. S. 프로이트에 의해 대상이 되는 정신의 영역을 ‘무의식’으로 지정함으로써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가지게 된 것과도 같았다. 이처럼 S. 프로이트에서 비롯된 ‘심층심리학’은 정신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탐구의 방법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무의식’이라는 정신 영역의 현존을 주장하는 ‘심층심리학’은 ‘정신=의식’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근대 이후의 서구 정신사적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비록 정신의 내용이 주관정신으로 알려졌지만, 서구의 학문적 입장은 여전히 정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하고서, 정신의 지성적 능력으로 획득하는 내용들에만 주목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결국 주관정신을 고스란히 객관정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심리학적으로 일종의 팽창Inflation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등장한 심층심리학적 작업은 의식 이외에 ‘무의식’이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역의 실재를 주장하여 정신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특히 심층심리학은 ‘무의식’을 주관정신에 소급할 수 없는 객관정신의 영역으로 밝혀내어 근대 이후 ‘정신=의식’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시 객관정신을 개인성에 수용할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S. 프로이트에서 탐구된 ‘무의식’은 주로 정신 병리적인 현상을 생성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제대로 주관정신과 동등한 객관정신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가 주목한 신경증적인 증상은 모두 주관정신에 영향을 미치려는 객관정신이 만들어내는 갈등적 특징을 정신 병리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S. 프로이트에 의해 객관정신으로 모습을 드러낸 ‘무의식’은 여전히 의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신 영역, 의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신 영역이었다.

S. 프로이트의 뒤를 이어 C.G. 융은 ‘집단무의식’의 발견자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집단무의식’은 개인 인격을 이루는 배경적 기초로서 정의되면서, 점차 ‘무의식’은 의식에 의하여 소외되거나 억압된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정신 영역으로 드러난다. C.G. 융은 연구를 통하여 개인이 ‘집단무의식’에 힘입어 주관정신을 넘어 객관정신의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경

험적 사실을 풍부하게 제공하게 된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집단무의식’은 각 개별자들의 개인적 삶에 인간의 보편적 이념의 가치를 부가하는 객관정신의 면모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밝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심층심리학은 정신 현상의 무의식적 과정을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자아의식이 ‘집단무의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화의 내용까지 다룰 수 있는 학문적 방법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개념은 C.G. 융에서 ‘자기Selbst’라는 표현으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적 작업은 분석심리학이 가장 강조하는 “개인의 전(全)-인격화Individuation”로 드러난다. 이러한 심층심리학적 작업은 객관정신을 다시 인간의 정신에 수용하는 내용으로 제안하여 인간을 소우주로 여겼던 고대적 영혼의 관점을 회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심층심리학적 작업이 ‘무의식’의 발견에서 비롯되어 결과적으로 정신 그 자체를 탐구과정에 이르는 내용을 다루려는 것이다. 특별히 S.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넘어 C.G.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 이르렀을 때, 주관정신에서 나아가 점차 객관정신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루려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그 하나는 S. 프로이트가 시작하였던 ‘무의식’의 연구의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로써 ‘정신=의식’이라는 주관정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의의가 제기되고 객관정신으로 나아가는가를 다룰 것이다. 또 다른 하나로는 C.G. 융에서 ‘집단무의식’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C.G. 융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신 그 자체 혹은 심혼(Psyche¹⁾) 탐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필 것이다. 여기에서 C.G. 융의 분석심리학적 방법론은 전체 정신 영역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주관정신과 객관정신과의 재결합을 위한 구체적이지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분석심리학이 가지는 의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철학적 심리학에서 의학적 심리학으로

‘심리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적 영토가 확보되기 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영혼에 관한 논의들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담론이 있었는데, 이는 철학에 속하는 것이었다. 17세기에 C. A. 볼프(Wolff)가 처음으로 철학 이외에 심리학적 논의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하게 되었다. 이는 정신 그 자체에 관한 연구의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지만, 이를 더 이상 철학적인 사색이 아닌 ‘경험적’ 혹은 ‘실험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서구에서는 끊임없이 집단정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개별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하여 점차 개별정신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개별정신이 인식될 정도가 되면서 경험되는 정신을 주관정신이라는 상대적 가치의 정신성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이는 I. 칸트(Kant)에서 물자체의 세계와 구분되는 주관정신의 세계로 제한되었다. 이같은 주관정신의 인식은 거의 언제나 암묵적으로 철학적 논의에서 정신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없는 것처럼 자명한 것으로 보아왔던 전통적인 학문적 입장에 변화를 맞이한 셈이었다. 결국 심리학은 다양한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 정신의 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신의 주관주

1) ‘Psyche’를 심혼으로 번역한 것은 이를 정신Geist나 영혼Seele를 모두 포괄한 정신으로서의 내용으로 다루기 위해서이다. 정신Geist이란 의식의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영혼 Seele이란 종교적 심령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심층심리학은 그 둘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심혼Psyche’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들어간다.

의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대두된 것이었다.

19세기 말까지 주관정신의 대두로 경험주의적 탐구라는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정신의 내용을 오성과 이성의 사용에 두고 있다. 심지어 오성과 이성의 힘으로 정신이 스스로 한계를 벗어나서 초월적인 것에도 이를 수 있다는 자기 기만의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심리학을 철학적 전통 내에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정신이 경험하는 주체의 주관정신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대략 두 가지의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 하나는 각 개별 인간의 주관주의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자마자, 이러한 주관주의적 인식은 오성의 영역 이상으로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점은 칸트에서처럼 겸손하게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의식하는 것이었다. 니이체에서는 주관주의적 한계를 의식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죽었다’는 형태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쇼펜하우어 등에서는 주관주의가 접근하기 어려운 객관의 절대가치의 것을 따로 보증하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헤겔에 이르면 또 하나의 다른 해결책이 등장한다. 적극적으로 주관주의적인 인간 의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그 주관정신에 전 우주적 가치를 끌어들이는 정신의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내용으로서 도전한다. 이러한 헤겔의 시도는 근대 이후 주관정신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이는 객관정신의 확보없이 단지 인간 오성으로 우주적 가치로까지 확장하여 이전의 객관정신이 보여주던 활동과 가치를 재현하려 한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는 사실상 ‘정신=의식’이라는 관점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어느 하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전자의 관점은 개인적인 가치의 정신을 인간 정신의 전부로 여기게 됨으로써 고대로부터 누려오던 객관정신을 전적으로 배제하여 정신은 인간의 크기로 완전히 축소되고 말았다. 후자의 관점은 객관정신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관정신을 과거의 객관정신의 영광을 물려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의식의 팽창Inf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두 가지의 현상에서 보듯이 인간정신의 크기를 단지 주관정신으로 여길 수 없음이 드러난다. 사실상 위의 두 모색은 철학적 심리학의 접근이었으므로, 경험적, 실험적 관점으로는 여전히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세기 동안 대학에서 가르쳐진 심리학은 주로 분트(Wundt)학파의 심리학이었다. W. 분트 (1832-1900)는 실험 심리학의 기초자였다. 특히 그는 당시의 G. 페히너나 H. v. 헬름홀츠 등과 나란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서 진행되어온 경험적, 실험적 심리학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 심리학이 모습을 드러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가 과학적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심리학이 경험을 강조하는 자연과학적 학문이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사실상 연구의 관점은 의식심리학에 머물고 만다. 분트 학파의 심리학은 의식만이 정신이라고 여기면서, 주관적, 개별적 경험의 사실을 주로 감각의 문제로서 다루었다. 분트의 『심리학 개론』(제 5판, 1902년)에서 보면 무의적 정신을 의식에서 사라진 어떤 정신적 요소로 간주하고, 그것이 재생되면 의식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분트 학파류의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인 상태가 적어도 의식의 역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주장들에서 ‘정신=의식’이라는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대학에서의 심리학은 두 흐름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한다. 제1 철학인 인문학에 속하던 심리학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심리학이 등장하는데, 제2 철학인 자연철학에 속하는 의학 심리학이 그것이다. 의학 심리학의 시작은 스위스 의학자 T. 파라셀수스(

2) C.G. Jung, 'Theoretische Überlegung zum Wesen des Psychischen', in G.W.Bd. 8 par. 349 재인용

1490-1541)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밖에 S. 프로이트 이전에 최면요법을 시작한 F. A. 메스머(1734- 1815), 최초로 ‘히스테리 hysteria’라는 이름의 노이로제 진단을 붙인 J. M. 샤코(1825-1893) 등이 있으며, P. 자네(1859-1947)는 최면요법으로 드러나는 무의식적 과정을 탐구하여 나중에 S. 프로이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철학적 심리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의학심리학’은 철저한 임상적 경험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의학심리학적 입장은 전적으로 임상에서 마주치는 정신병리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신 병리적 증상의 주체를 의식의 영역으로 환원시키기 어려운 것이었다. S. 프로이트가 그 증상의 주체를 ‘무의식’이라고 하기 전에 P. 자네(Janet)에 의하여 의식 이외의 또 하나의 의식을 상정하는 일종의 이중적 의식이 한 개별에 가능하다고 주장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중인격적 특성은 임상에서 공공연히 발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신=의식’이라는 관점은 의학 심리학의 작업에서는 근본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었다. 여전히 이중적, 다중적이긴 하지만 모두 경험되어지도록 한 개인의 인격적 표면에서 발견된다는 점 때문에 ‘의식’이라는 관점을 버리지 않았다. 의학 심리학은 정신에 관한 탐구를 더 이상 주관정신에만 두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만 이들이 경험하던 객관정신은 여전히 정신 병리적인 것으로 알려져야 했다. 이러한 작업의 전통 속에서 마침내 S. 프로이트에 의해 ‘무의식’의 발견이 이루어 졌다.

무의식의 발견의 의의

물론 의학심리학적 접근이 있기 전에도 ‘무의식’의 논의들이 있었다. 그 논의들은 ‘무의식’이라고 명명되지 않고 다루어지거나, 때로는 ‘무의식’이라고 하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I. 칸트 전후에 시작된 소위 美學에 해당하는 논의 속에 ‘무의식’적 내용들이 다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학이나 예술과 같은 비합리적인 정신의 산물을 해명하기 위하여, 의식이 아니라, 그 언저리에 소위 불명료한 의식성을 상정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서 전혀 ‘무의식’이라고 밝히지 않고서 오늘날과 같은 ‘무의식’의 개념들을 다루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Th.페히너나 Th.립스가 무의식적 감각과 표상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다루는 정신의 과정은 오늘날 심층심리학에서 보면 무의식적 정신의 과정에 주목하는 논의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정신의 과정’이란 그것의 성질, 다시 말해 그것의 개념에 따라 의식 내용이나 의식체험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의 현존의 근간에 놓여있는 절대적으로 함께 고려된 정신의 실재이다. 의식적 삶에 관한 관찰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무의식적 감지나 표상들은우리 안에서 때때로 발견될 뿐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연관이 요건데 언제나 그러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만 때때로,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려는 것이 상들을 통하여 자신의 현존재를 직접 알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생활은 항상 의식내용의 형상이나 상들로, 우리 안에 현존하거나 현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진행되는 것이다.³⁾

이상과 같은 내용은 의식 영역의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 정신의 활동을 주목하여 해명하는

3) C.G. Jung, 'Theoretische Überlegung zum Wesen des Psychischen', in G.W.Bd. 8 par. 354 재인용

것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이다. 무엇보다도 의식의 내용이나 의식의 체험이 아니라, 그 근처에 놓여있는 정신의 실재에 관한 것이고, 그것의 현존이 像들을 통하여 알려진다는 내용은 전적으로 오늘날의 심층심리학적 연구와 일치한다.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실재 활동하고 영향력을 가진 정신의 실체로서 인식한 사람은 S. 프로이트였다. S. 프로이트는 임상에서 마주치는 정신병리적 현상이 생리학 및 신경학적으로는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학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식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그 ‘무엇’을 기존의 의학심리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의학심리학은 가능한 의식에 여러 정신 병리적 증상들을 소급시켜 이해하려 하였기 때문에 무의식적 정신의 활동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S. 프로이트 자신이 자신의 정신분석학의 시작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나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잠재적 정신의 활동에 절대로 정신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관련된 현상이 정신분석학 이외의 분야에서 전혀 연구대상이 못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병리적인 사실을 무시한 사람, 정상인의 일시적인 과실이나 실수행위를 우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 ‘꿈은 한갓 헛된 것’이라는 옛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등, 이들은 모두 의식의 심리학에서 제기되는 몇가지의 문제를 무시함으로써 무의식의 정신 활동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⁴⁾

S. 프로이트는 임상에서 마주치는 병리적인 증상 이외에도, 일상에서 의식의 의도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정신의 현상들을 ‘무의식’과 연관시켜보면서, 무의식적 정신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가장 일차적으로 ‘무의식’은 의식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은 현상의 주체, 심지어는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알려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S. 프로이트에 의해 밝혀진 ‘무의식’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그 동안 소외되어온 정신의 여러가지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무엇이 주로 ‘무의식’이라는 정신의 영역과 더불어 다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S. 프로이트는 J. 브로이어와 더불어 최면술을 통한 ‘카타르시스 요법’을 시행하면서 비로소 심리학적 작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카타르시스 요법’은 최면상태에서 환자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이 된 장면을 환기하게 하여 억압된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J. 브로이어는 초기 유아기적 시절의 외상Trauma에 증상의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처음에는 S. 프로이트도 외상이 증상의 원인이라고 여겼으나, 오히려 그의 관심은 이 외상에 대한 기억을 방어하려는 의식적 태도에 있었다. 또한 S. 프로이트는 외상과 더불어 가지게 되는 강한 정서적 충격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1900년 <<꿈의 해석>>은 ‘무의식’의 과정을 살펴보려는 S. 프로이트의 첫 시도였다. 정신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식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정신의 주체의 활동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꿈을 그 예로 삼은 것이다. 실재 임상에서 발견되는 많은 정신 병리적인 현상이 ‘무의식’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꿈의 장면들과 유비하여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꿈의 연구에서는 최면요법에서 벗어나 ‘자유연상’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자유연상’은 증상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강한 정서가 개입하므로 자유롭게 像을 생산하도록 하여 그와 더불어 정서를 해소하고 순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의식의 태도는 ‘억압’이라는 기제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태도

4) S. Freud, 'Das Unbewußte', in G.W. Bd. 10, S.267

를 가지고 있어 心象 그 자체로 표상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때로는 다양한 심적 변이에 따라 대체표상Ersatzvorstellung도 가능하다는 사실까지도 밝히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태도와 그에 대한 무의식적 정신의 활동성은 서로 대별되고, 특히 의식은 하나의 칸막이 식의 정신적 영역을 고수하고 있음을 밝히게 된 것이다. 꿈은 의식의 통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무의식이 본성적 요구를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곳이다. 꿈이 소원충족을 하고 있다고 하거나, 그와 같은 소원충족은 꿈꾸는 자가 꿈을 꾸지 않고 수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모두 의식의 통제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의식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 들여지지 못하는 ‘무의식’의 내용은 소외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감추고 있음을 해명하게 된 것이다.

점차 S. 프로이트는 여러 정신 병리적인 원인을 외상으로 보기보다는 유아기의 성애적 본능에 기인한 것으로 해명하기 시작하였다. 의식의 표면에 이른 心象들은 성애적 본능의 욕구충족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게 된다. 꿈이 아니라, 이제 낮 생활 동안 일어나는 백일몽이나 공상과 같은 것들도 모두 성애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드러난다. 더욱이 1907년 << 시인과 백일몽>>에서 백일몽과 예술가의 창조행위를 동일시 함으로써 심지어 문학이나 예술 작품 속에서도 욕구의 충족이 반영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는 나아가서 환상, 공상, 꿈, 예술이나 문학 등에서 드러나는 心象들은 이제 그 내면에 하나의 의미를 감추고 재현되어진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제 心象은 은밀한 욕망의 표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의미읽기’가 시도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의식의 태도는 곧장 사회적인 요구, 현실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본능과 대비되고, 이런 의식의 태도에 의해 본능적 요구는 철저히 은폐되거나 다른 것으로 변환되어야 수용된다는 점을 밝히게 된다. 이런 관점은 본능과 문명, 쾌락 원칙과 현실원칙이라는 대립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에서처럼 S. 프로이트에서 인간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주로 본능적 요구로 알려진 ‘무의식’은 주관정신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의식과는 다른 본능적 충동이라는 내용의 ‘무의식’은 그 자신의 고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객관적 정신의 요소로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신은 이제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중적 구조로서 이루어졌음을 경험적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신의 이중적 구조의 주장에서 ‘무의식’은 의식과 같등을 일으키는 정신 영역으로 부각되면서, S.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작업은 거의 대부분 신경증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신경증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저항과 전이라는 두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건망증이라는 세 번째 사실을 고려하여 억압, 신경증에 있어서의 성적 동기의 힘, 그리고 무의식에 관한 그것들을 설명하였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정신 일반에 대한 완전한 이론을 제공한다고 결코 주장한 적이 없다. 단지 제공된 것이 다른 수단에 의해 획득된 지식을 보충하고 교정하는데 적용될 것을 기대했을 뿐이다.⁵⁾

실재 S.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학문적 성과는 19세기 중엽의 독일의 물리학자 H. v. 헬름홀츠가 밝혀낸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G. 페히너가 정신을 양적인 것으로 측정하듯이 다루는 관점에 힘입어 ‘무의식’의 활동과정을 역학적인 가치로서 환원하여 해명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페히너의 지정학적인 표현들을 빌어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구분은 점차 정신의 조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정신을 이중적 구조

5) S. Freud, 'Das Unbewußte', in G.W. Bd. 10, S.272

의 것으로 해명하였던 것이다. 비록 실재의 정신 조직이 아니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표현은 비로소 ‘무의식’을 의식과 나란히 두고 의식이나 무의식이 각각 부분들로서 서로 상호관계를 밝히게 되고, 마침내는 무의식을 포함시킨 전체의 정신영역을 탐구하는 태도가 형성되었다는 데 그 의의 있다.

두 세 개의 정신조직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신분석은 서술적인 ‘의식의 심리학’에서 한걸음 떨어져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신분석이 지금까지의 심리학과 다른 점을 가지게 된 것은 주로 정신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려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신분석이 지정학Topographie을 고려해서 주어진 정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혹은 그 활동이 어느 조직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신분석은 ‘심층심리학 Tiefenpsychologie’이라는 명칭도 얻게 되었다.⁶⁾

S. 프로이트에서 이드Id, 자아Ego, 혹은 후기의 초자아Super-Ego 등의 지정학적 표현은 ‘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정신의 기관으로서의 해명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S. 프로이트의 작업은 후기로 갈수록 신경증은 의식이 상대적으로 ‘무의식’의 영향력에서 철저히 방어하여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여겨질 정도로 ‘무의식’이 의식의 크기보다 훨씬 부각된다. 초자아처럼 오히려 의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의식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무의식적 정신의 과정은 일차적으로 의식의 검열이 있게 되는 것처럼 드러난다. 그러나 무의식적 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의식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조차도 어떤 경우에도 이미 오랫동안 잠재적인 상태 말하자면 무의식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철저히 정신적인 것이 의식적인 것이라는 통념을 제거하고 정신적인 삶이 거의 언제나 잠재적인 상태에서 점차 의식의 표면에 이르게 되었다는 관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의식을 정신의 주체로 간주해온 입장에는 코페르니쿠스적 전이를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담론을 통하여 오히려 의식이 상대적으로 후천적으로, 혹은 이차적으로 형성된 정신의 구조물임을 밝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S.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탐구는 점차 정신을 전혀 낯선 객체로 새롭게 대상화할 학문적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었다. C.G. 융은 이러한 관점에서 S. 프로이트에서 비롯된 심층심리학적 작업이 단순히 의식에 밀려난 귀퉁이 영역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신 그 자체에 의문부호를 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가설은 정신의 개념의 이면에 놓여진 커다란 의문부호에 해당한다. 당시까지 철학적 지성에 의하여 정해져서는 온갖 능력을 부여받았던 심혼Psyche은 예기치 못하고 규정되지 못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심혼은 이제 더 이상 직접 알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도 다소 만족할 만한 정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찾아낼 만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제는 잘 알려진 것이면서 동시에 낯선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과거의 심리학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마치 고전물리학이 방사능의 발견으로 혁신이 일어났던 것처럼 새롭게 되었다.⁷⁾

간추려보면, 이상에서 보았듯이 S.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은 의식이외의 정신 영역이 있음을 나타내면서, 신경증의 해명으로 억압되고 소외된 정신의 영역은 의식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 정신 영역이라는 점으로 나아갔다. 특별히 억압되어진 것이 성애적인 본능이라는 사실은 고도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 도덕적 가치로 진보해온 현대인들의 태도와

6) S. Freud, 'Zur Gesichte der psychoanalytischen Bewegung', in G.W. Bd. 10, S. 93-94

7) C.G. Jung, 'Theoretische Überlegung zum Wesen der Psychischen', in G.W.Bd. 8 par.356

대비가 된가는 점에서 되는 그 의의가 크다. 실재 S. 프로이트의 작업이 알려지자마자 서구의 반응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신의 무의식적 동기를 성욕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S. 프로이트에 대해 동시대인들에게서 강한 반발과 저항이 나타났지만, 다른 한편 20세기초 문화사적인 흐름, 특히 예술사 안에서는 원시적인 심성을 표출하는 기법이 등장하고, 자연히 반이성적, 비합리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심리주의적 표현의 등장은 S. 프로이트의 또 다른 동반자 내지는 지지자들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고도로 문명화된 인간의 내부에 원시의 정신성을 가진 낯선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S. 프로이트에서 '무의식'의 발견의 의의는 의식이 정신을 대변하고, 그래서 주관주의적 팽창을 일으키는 현대적 관점에 한편으로는 반성적 모색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 그 자체의 새로운 연구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S. 프로이트에서는 여전히 '무의식'은 의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신의 내용으로 알려진다. 고전적 의미에서 객관정신은 의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성애적 본능의 주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주관정신을 고무하고 신적인 절대 정신의 가치로 인도하는 것이 객관정신이였다. S. 프로이트는 의식에도 무의식에도 그러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더 비판적 시선으로 본다면 실재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신분석적 작업은 정신의 모든 현상을 개인사로 소급시키고 만다. 이러한 환원적 작업은 객관정신으로 나아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실험적 경험적 심리학으로 객관정신에 관한 논의는 비로소 C.G. 융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S. Freud (1856-1939) 정신분석학
 A. Adler (1870-1937) 개인심리학
 C.G. Jung (1875-1961) 분석심리학

정신분석학적 관점 vs 분석심리학적 관점

	프로이트	융
리비도	성애적·본능적 충동	생명력, 정신 에너지
무의식	억압으로 인해 생겨난 개인무의식	개인무의식과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정신의 기본요소로서의 집단무의식
콤플렉스	근친상간적인 주제로 나타나는 신화적 사건	자율적인 정신의 실재, 부분 인격
근친상간적 주제	유아기의 성애적 욕구에 기인한 사실	근원적 정신으로 귀환 및 재탄생을 위한 상징
무의식의 기능	유아기의 성애적 욕구 충족	창조적, 보상적, 초월적
상징의 이해	기호적	상징적
해석적 방법론	구체적, 환원적, 인과론적	상징적, 구성적, 목적론적
콤플렉스의 해소	자유연상	적극적 명상
정신치료	억압된 성애적 욕망의 인식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에 의한 인격 변화